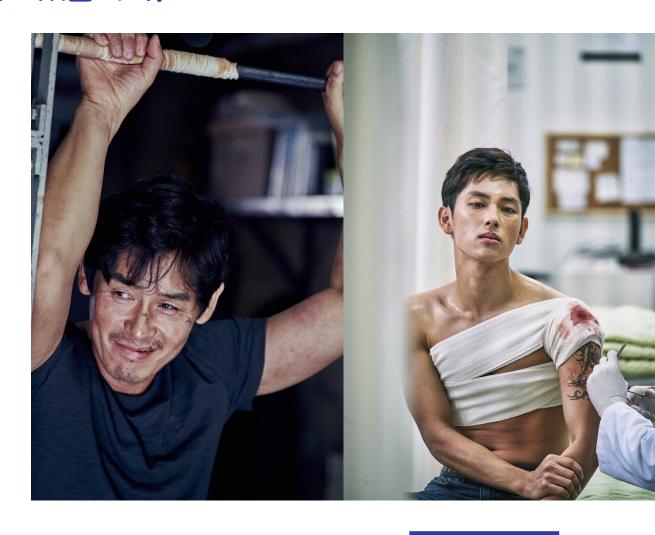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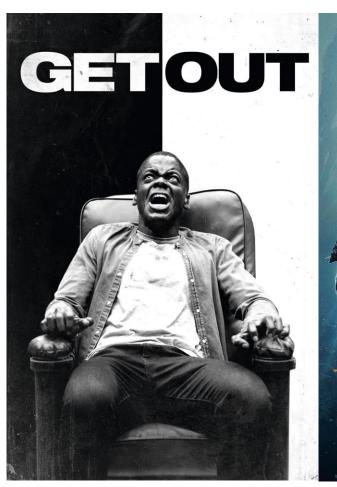
혹시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2017년 5월에 개봉한 국내 언더 커버/격정 멜로 영화입니다.

주연배우로는 설경구, 임시완씨가 나왔습니다만, 참관객 수는 저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겟 아웃',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자는 말이 없다' 같은 해외 유명작들이 개봉을 했기 때문이죠.





또한 감독의 SNS에서 한 언행이 오해를 일으려 보이콧을 당했고, 결국 참관객수가 100만도 넘지 못하고 IPTV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위) 감독 변성현



이러한 불한당 흥행의 부진을 안타까워하는 팬들 일명 '불한당원 '들이 수많은 영화관을 대관하고 7월 2일엔 영화의 전당을 대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월30일 〈불한당〉 Thank You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또한 20번 넘는 대관 동안 주연 배우들이 와서 GV행사를 갖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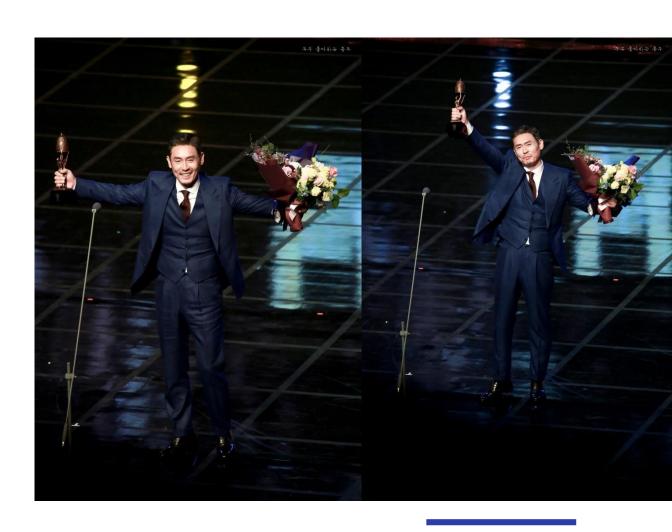


영화계에서 이례적인 팬덤의 영화사랑이죠.

'불한당원'의 힘은 셌고 배우 설경구는 '지천명 아이돌'로 거듭났고 〈불한당〉은 재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설경구는 15년 만에 대종상에서 〈불한당〉으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게다가 2018년 5월 3일 열린 백상예술대상에서 시상자, 수상자 모두의 입에서 '불한당원'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도 올랐습니다.

1~10위	11~20위	
1 2018 백상예술대상	<u></u>	7
2 김남주	<u> </u>	7
<i>3</i> 1987	<u></u>	7
4 설경구	<u></u>	7
5 불한당	<u></u>	71
6 불한당원	<u>_~</u>	71



간에 초청되어 7분 동안 기립박수를 받은 명작이 한 순간의 오해로 인해서 빛을 보지 못한 것이 안타깝네요.